

제1장 연구출판윤리의 개념

연구의 진실성(research integrity) 또는 좋은 연구(good research practice)란 연구계획 단계에서부터 출판 후까지 전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을 말한다. 연구윤리(research ethics)는 출판윤리(publication ethics)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로도 사용되며, 협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말한다.

의학연구에서 가장 선행되는 윤리적인 문제는 인간 또는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이며 연구주제, 연구대상과 규모, 대조군의 설정, 연구자료의 수집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합당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윤리의 위반은 연구 결과에 문제를 초래해 논문 가치가 없어지고 나아가서 학문을 오염시키는 범죄행위로 취급된다. 날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이 이에 해당되며 인용 누락 등 가벼운 표절은 출판윤리에 포함되기도 한다.

출판윤리는 완성된 연구 결과를 출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말하며, 이중계재가 가장 흔하고, 잘못된 저자됨(authorship),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심사과정에서의 윤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론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완성된 연구이므로 논문의 가치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 부정직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반 행위가 중복되어 일어나기도 한다.

연구윤리는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고 특히 연구나 출판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각 연구기관은 연구를 처음 시작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연구윤리에 대한 지침은 연구자를 규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를 함께 보호하는 장치이다. 이를 준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문 발전에 부합하는 것이다.